

• 레위기 4:27-31, 5:14-16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죄를 깨닫는 ‘즉시’ 드러야 했습니다. 다음날, 다음 제사까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죄진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와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며 사죄해야 함을 뜻합니다.

인간은 부지중에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몰랐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거나, 죄의 심각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지은 죄가 떠오르면,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5:23-25).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죄를 깨닫는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삶 또한 예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속 깊은 아픔과 눈물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예배드리는 동안 나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자매의 아픔 그대로를 알고 느끼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예배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네 배나 갚겠다고 약속합니다(눅 19:8-9). 거듭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구체적인 삶의 변화까지 동반합니다.

나는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 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 ② 나로 인해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